

복잡하고 전례 없는 도전의 시기에 리더가  
힘든 조치를 취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 내가 배운 용기 있고 사랑에 찬 리더십

메리 앤 A. 맥마혼 수녀(Maryann A. McMahon, OP)

곤경에 처했을 때 나는 하느님께 부르짖었고 그 분께서는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  
--시편 18 편

저는 수녀회의 리더로서 시편 18 편의 이 후렴을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의료 전문가인 저조차도 시험과 시련을 겪었던 코로나 19의 시기에 수도 공동체를 이끌면서, 이 말씀은 특히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건강한 관계가 없었다면 지난 몇 년간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거의 리더 없이 방치했을 수도 있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희 수도회 회장/수도원장으로 봉사해왔지만, 저의 전문적 교육은 전문간호사로서 받은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 저는 제 앞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에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집중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집중된 관심을 순간순간 다른 사람이나 문제로 돌리는 방법도 배웠는데, 이는 지금까지도 제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저는 더 잘 듣고 소통하고, 더 공감하며,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하느님께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 일과를 보면 다양한 요구와 질문, 관심을 요하는 각종 문제를 다루는 회의에 연달아 참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받았던 훈련 덕분에 빠른 삶의 속도에 대처하고 눈앞에 있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일들 사이를 빠르게 이동하면서도 항상 제 앞에 놓인 일의 고유성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 주시며 하느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현존'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저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선물이자 은총입니다.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동안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우리 수도회가 작아지고, 급변하는 현대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 감소하면서 더욱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리더로서의 역할과 도전은 과거보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쌓고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의 유산을 이어가도록 계획하는 것도 즉각적이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나는 하느님께 부르짖었고, 그분께서는 나를 도우셨다."

저는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그날의 혼돈을 이해하고 하느님이 주도하시기에 희망을 가지고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종의 리더십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모든 만남이 사목적이고 친근하며 관계를 맺는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제 내면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저의 마음을 다른 이를 향한 사랑과 봉사의 마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오늘날 리더는 하느님의 은총에 의지하고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저는 공동체 모임을 시작하거나 사랑하는 우리 수녀님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할 때  
심호흡을 하고 하느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느님과  
하느님의 영은 항상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위자나 권위를 지닌 이에게 사랑이  
담긴 진실을 말할 때나 수도회의 미래에 대해 투명하게 공유할 때 하느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모든 만남 안에서 우리를 통해 빛나야  
합니다.

자매 수녀님들과 대화할 때 저는 각자의 표정과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고 난 후에 조심스레  
다가갑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세상에 존재하시는 방식을 따르려고 노력하며, 보이는 것의  
이면을 들여다보며 마음에 짐을 진 이들과 그저 함께 있어 주려 노력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물읍니다: 나는 우리 수녀님들에게 어떤 하느님의 얼굴인가? 우리 수녀님들은 나에게 어떤  
하느님의 얼굴이며 사랑인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느님을 나는 알아볼 수 있는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저는 우리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 용기 있고 정직하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에 대한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십은 두려움이나 공포를 심어주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 극적인 변화의 시기를 함께 하고 있다고 안심시켜 주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이 전에도 우리 곁에 계셨고 지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느님과의 관계, 서로와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리더가 된다는 것은 우리 수녀님들 앞에서 기꺼이 약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불확실성의 고통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정직하고 투명하며 사랑으로 현재의 현실에 대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나누어야 합니다. 수녀님들이 하느님의 부드러움과 사랑을 느끼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제가 그들을 안심시키는 말을 선택하거나 부드러운 손길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손길.

오늘날 리더로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을 만큼 나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의  
나로서 살 수 있도록 하느님과 나 자신을 신뢰해야 합니다. 때때로 누군가 나에게 대해 실망할 때,  
그게 나의 정직한 모습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답해야 합니다. 오해를 받거나 잘못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바에 충실했으며, 다른 이들의  
행동이나 말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내 자신의 약점과 실패를 인정하고 기꺼이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느님과 다른  
이들 앞에서 나의 인간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무지함을 하느님과 자매  
수녀님들의 발 앞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내 삶에서 하느님의 음성과 행동을 인내롭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앞에 태어나며 펼쳐지는 미지의 미래를 우리  
리더십에 있는 수녀님들이 여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저에게 우리 수녀님들의 동반이 필요하듯, 다른 리더십에 있는 수녀님들과도 기꺼이 동행하고 그들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를 기꺼이 그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안아주고 방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깊이 경청하고 사랑해야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우리의 약점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리더로서의 역할에서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서고, 도와야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걷기**

리더로서의 역할을 통해 저는 진정한 나 자신을 알 수 있었고, 정직하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실수와 잘못된 견해, 오해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넓은 품과 은총에 기대어 조건 없이 사랑받고 하느님의 마음에 안전하게 안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나는 하느님께 부르짖었고, 그분께서는 내게 응답하셨다."

*메리 앤 수녀님은 위스콘신주 라신에 있는 성 도미니크 수녀회의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